



福音新聞社
大阪市西成区梅通5-2
連絡事務所・京都市右京区
西院矢掛町20 京都教会内
電話(075)311-5051
郵便・丁 仁 寿 社
刷・備 文 社
電話(06)716-5046
定 価 200円

- 1. 教会革新
- 2. 社会変革
- 3. 世界所望

主題「3・1独立運動과在日同胞」

教会... 独立運動의 温床

KCC 公開講座 開催

지난 3월 3일 KCC 사회문제연구회는 제53회 3・1절을 기념하여 「3・1 독립운동과 재일동포」라는 주제로 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강좌는 3・1운동의 도화선의 역할을 한 당시 (一九一九년) 동경유학생들의 2・8선언의 상징성을 재평가하고 역사적인 의의를 고찰하여 오늘 재일동포의 과제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공개강좌에는 재일 대한기독교교회 교인들을 비롯해서 교회청년, 한청, 학동, 일본 가톨릭교회와 루터교, 일방인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강사는 KCC사회문제연구회위원장 나중남씨였으며 2・8선언을 중심으로 약 1시간에 걸친 강연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열렬한 토의가 있었다.

祖國發展 寄与 다짐

三・一節記念式盛況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압제를 만천하에 공포하고 삼천만 겨레가 하나로 뭉쳐 독립을 쟁취하였던 3・1절을 기념하여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은 일요일인 3월 12일 오후 2시에 본관에서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기념식에는 일본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이 모여 53년전의 피눈물나는 날을 회고하면서 선열들이 남기고 간 업적을 회고하고 재일한국인의 민족적 자각과 함께 조국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전도자로서 재일동포 선교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전영복목사는 지난 3월 1일 福井市에서 개최된 三・一절기념대회에 특별강사로 참석하였다. 회색한복에



論壇

一、基本的人權이 侵害을 받는 体制에 있어서는 人間의 삶은 그 자체가 苦痛의 연속이다. 더구나 日本社会에서의 苦痛이 日本社会에서의 苦痛의 二重三重的인 悪条件의 挑戰으로 疊쳐져 있다. 밖으로서는 日本人의 蔑視와 差別속에 日本人의 人權을 되찾기 위한 斗争이요, 안으로서는 同族과 兄弟間의 思想差異에서 가져오는 敬遠과 分裂과 世代的 断絶에 對한 싸움이라 하겠다. 이 같은 問題들은 平面的인 것이 아니고 複雜하고 오랜 歴史의 結晶인 지극히 小市民的인 精神狀況으로 나타나고 있다. 消極的으로 나타나는 것을 社會와 各國 大・公使에 對한 通達하였고 母國에서 對한 狀況을 云々할 資格이 없다. 예를 들어 말다.

生의 挑戰

의 先輩들은 韓日合併後의 民族의 主体性을 찾기 위하여 日帝에 肉彈으로 挑戰하였고 東京에서는 留學生들이 中心되어 全朝鮮青年獨立團을 組織, 一八九・二・八에 獨立宣言文을 作成하여 日本議會에 提出하였고 母國에서 對한 狀況을 云々할 資格이 없다. 예를 들어 말다.

關西高等部 修養會

主題「高等學生의 오늘과 내일」

재일대한기독교교회총회 관서지방회 고등부에서는 「고등학생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3월 28일부터 30일까지(2박3일) 六甲YMCA연수센터에

靖國神社法案 反對

信教의 自由 지키는 集會

在日大韓基督教에 對한

군국주의의 흐름에 항거하여 靖國神社에 반대하는 자/란 주제를 내걸고 日本基督教團・西中國教區・広島西分區가 주최한 2・11 신교의 자유를 지키는 집회 1시부터 広島YMCA 소강당에서 회합되었다. 재일대한기독교 広島교회 김진환목사와 広島南部教會 杉原 助壽자의 강연이 있었다. 이날 집회가 끝난 뒤 참

KCC에 奉

지난 3월 7일 오전 4시경 大阪生野區猪飼野東3-33所在 KCC에 화재가 발생, 1층을 불태우고 약 30분후에 진화되었다.

화재원인은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재로 인하여 사무실에 둔 전기계산기(17만원 상당)가 도난당한 것을 보아 방화・절도로 보여지고 있다.

2층 3층은 불꽃과 연기로 가득 찼으나 예배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9일부터 대관교회교우들이 화재 후의 정리에 나섰고 현재 복구작을 서두르고 있다.

教役者 夏期修養會

「도시사회에 있어서의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교역자 하기연수회가 오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3박4일) 山陰地方(鳥取近郊)의 온천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강사는 동경 루터신학대학 石田順郎教授와 자스던 모래목사이다.

李相龍名譽長老 推戴

12日、豊橋教会에서 재일대한기독교교회 豊橋교회 이장용장로 명예장로 추대식이 3월 12일 오후 3시 동교회에서 내빈다수 참석하여 가운뎃거행되어 성황을 이루었다.

別世

堺교회 이의수장로가 2월 9일 오랜병환으로 인해 별세하여 10일 윤중은 목사 사석하에 고별식이 거행되었다. 今月号의 소도스는 유재합니다.

★이 글은 三・一節을記念하여 當時 留學生東京의...★
 ★獨立運動組織인 靑年獨立團이 一九一九年 二月 八...★
 ★日日 朝鮮基督教靑年會館에서 發表한 獨立宣言書를 全文...★
 ★揭載한 것이다. 起草는 李光澤氏가 하였다.★

「全朝鮮青年獨立團」은
二千萬朝鮮民族을 代表하야
正義와 自由와의 勝利를 得
을 世界万国의 前에 獨立
期成할 것을 宣言한다。
四千三百年の 長久한 歷
史를 有한 吾族은 實로 世
界最古文明民族의 一이다。
三國中葉以降 往往 支那의
正朔을 奉한 事 있다하
고도 此는 兩國主權者間의
形式的 外交의 關係에 不
過하며 朝鮮은 堂堂히 朝
鮮民族의 朝鮮으로서 曾히
統一의 國家를 失하야 異
族의 實質的 支配를 全受
한 事 없었다。

和와 韓國獨立과의 兩大目的을 追求하였다. 戰爭이 終結되야 當時 美國의 大統領인 「루즈벨트」氏의 仲裁로서 日露間에 講和會議의 開設을 見함에 及하자 日本은 同盟國인 韓國의 參加를 不許하고 日露 兩大國 代表者間에 任意로 日本의 韓國에 대한 宗主權을 議定하다. 日本은 優越한 兵力을 持하고 韓國의 獨立을 保全한다는 旧約을 違反하고 暗弱한 當時의 韓國皇帝 及 其政府를 脅威하고 欺瞞하여 「國力の 充實 能히 獨立을 得할 時 期까지」라는 條件으로서 韓

한 詐欺의 成功은 人類史
上 特筆할 大恥辱이라고 信
한다.

保護條約을 締結하였을 時
皇帝와 賊臣아닌 數人의 大
臣은 모든 反抗手段을 尽
하였을 뿐만 아니라 發表
의 後에도 全國民은 赤手
로서 可能한 모든 反抗運
動을 한것은 司法警察權의
被奪及 軍隊解散의 時에
도 然하며 合併의 時에 當
하여는 手中에 寸鉄도
치 않음에도 不拘하고 可
能한 모든 反抗運動을 하
여 精銳한 日本의 武器의
犧牲이 된 者 其數를 不
知하며 爾來 十年間 獨立

에서	交通	한	과	聖	史	役	을	八	에	나	權	寺	拘束	由
全部	通信	外	威	威	改	者	施	에	比	吾	侵	諸	하	企
或은	兵備	政府	敵	史	造	를	하	吾	하	族	害	機	여	業
大部分	等	의	과	的	하	만	여	族	여	과	하	関	行政	自
吾	諸	諸	고	民	며	하	로	으로	設	하	公	司	司	由
成	機關	機關	凌	族	하	하	驅	優	한	人	에	法	警	不
求	及	除	統	傳	며	神	會	略	教	私	人	民	少	少
有	法	至	平	併	會	利	減	會	會	文	文	民	民	民

建設에 努力하고 있다. 中華民國 亦然하다. 加此度 國際連盟이 實現 敢行하는 強國이 欲 것이니 그러면 韓國을 併한 最大理由는 既히 消 되었음뿐 아니라 此로부 朝鮮民族이 無數의 革 亂을 起한다 하면 日本에 合된 韓國은 反히 東洋 和를 攪亂하는 禍源임에 합치나 吾族은 正當한 方 으로서 吾族의 自由를 追 하겠지마는 万若 此로써 功치 못하면 吾族은 生 의 權利를 爲하여 모든

朝鮮青年獨立團
右代表者
崔八鏞 尹昌錫
金度演 李琮根
李光洙 宋繼白
金喆壽 崔謹愚
白寬洙 金尚德
徐椿

一、本團은 日韓併合은 吾族의 自由意思로서 된 것이 아니라 吾族의 生發展과를 脅威하여 東平和를 攪亂하는 原因이 되는 理由에 依하여

齒의 關係가 있음을 自當
知다 稱하여 千八百九十
五年 「日清戰爭」의 結果
韓國의 獨立을 率先 承認
하고 英・美・仏・獨・露等
諸國도 獨立을 承認하였을
뿐만 아니라 此를 保全하
기를 約束하다. 韓國은 그
恩義에 感하여 銳意諸般의
改革과 国力의 充美를 圖
하다. 當時 露國의 勢力
東漸하여 東洋의 平和와 韓
國의 獨立과를 脅威함으로
日本은 韓國과 攻守同
盟을 締結하고 日露戰爭을
開하여 東洋의 平和와 韓
國의 獨立保全과는 實로 此
同盟의 主旨이며 韓國은 一
層 其 好誼에 感하여 陸
海軍의 作戰上의 援助는 不
可能하지만 主權의 威嚴하
지 犧牲하여 可能한 모든
義務를 尽하여 東洋平和

를 일본의 保護國으로 하며 韓國으로 하여금 直接 世界列強과 交涉할 道를 斷하고 次에 「相當의 時期」까지라는 條件으로 警察權을 奪하야 更히 兵令 實施까지라는 條件으로 軍隊를 解散하며 民間의 武器를 押收하며 日本 軍隊와 憲兵警察을 各地에 配置하며 甚함애 至하야는 皇宮의 警備에까지 日本警察을 使用하다. 如斯히야 韓國으로 하여금 全히 無抵抗하게 만들고 明哲의 稱이 있는 韓國皇帝를 退位케 하며 知能에 缺한 皇太子를 擁立하야 日本의 走狗로써 所謂 合併內閣을 組織하야 秘密과 武力과의 裏에 合併條約을 締結하다. 後에 吾族은 建國以來 半 万年 自己를 指導하고 援

十萬 慘酷한 憲兵政治下에
 手足과 口舌과의 箱制를 受
 하면서 도 曾히 獨立運動의
 絶한 事없다. 此로 由하여
 觀하여도 韓日合併은 朝鮮
 民族의 意思 아님을 知할
 지니 如斯히 吾族은 日本
 의 帝國主義의 野心의 詐欺
 와 暴力下에 吾族의 意思
 에 反한 運命에 置케 된 일
 事는 正義로써 世界를 改
 造하는 此時를 當하여 當
 然 其匡正을 世界에 求할
 權利가 있으며 又 世界改
 造의 主人인 美와 英과는
 保護와 合併과를 率先 承
 認한 理由 此時에 其旧惡
 是 贖한 義務가 있다고 信
 한다. 又 合併以來 日本의
 朝鮮統治의 政策에 觀하건
 대 併合當時의 宣言에 反
 하여 吾族의 幸福과 利益
 과를 無視하고 征服者가 被

內生活의	知能과	經驗과를	得할	機會를	不得케	하니	得族은	決코	如斯한	武斷	專制	不正平等한	政治下	에서	生存과	發展과를	亨	受하기	不能하며	加之	元	木	人口過剩한	朝鮮에	無	制限으로	移民을	奨勵하고	補助하여	土着의	吾族으로	하여금	海外에	流離함을	不	免케하며	國家의	諸機關은	勿論	私設의	諸機關에	가	多數의	日本人을	使用	하며	又是	使用케	하여	一	初務와	朝鮮人으로	하여금	職	固	朝鮮人의	富를	日本으로	流出하며	又	商工業等	에서	日本人에게	特殊한	便宜을	與하여서	朝鮮人의	하여금	産業的	勃興의	機	云를	失케하여	如斯하	如何한	方面으로	見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人까지 自由를 爲하여 熱
의 瀧을 不辭할 것이다。
豈 東洋平和의 禍源이 아
랴. 吾等은 一兵도 有치
하니 吾族은 兵力으로써
本에 抵抗할 實力은 없
다. 然이나 日本이 万若
族의 正當한 要求에 応
않으면 吾族은 日本에
하여 永遠의 血戰을 宣
하겠다.

吾族은 久遠하고 高等한
文化를 有하며 又 半万年
國家生活의 經驗을 有
者인즉 從令 多年 專
政治의 害毒과 境遇의 不
과 吾族의 今日을 致하
다 하자. 正義와 自由와
基礎로 하는 民主主義
上에 先進國의 範을 取
新國家를 建設하면 建
以來 文化와 正義와 平
와를 愛好하는 吾族은 必

二、本團은 日本議會 及 政府에 對하여 朝鮮民族大會議을 召集하여 其 決議로 吾族의 運命을 決할 機會을 與할 것을 要求한다。

三、本團은 万国平和會議 民族自決主義를 吾族에 適用할 것을 請求하

右 目的을 達키 爲하

日本에 駐在하는 同國 公使에 對하여 本團의 意 傳達할 各其 政府에 依賴하며 同時에 委員 二人을 万国平和會議에 派遣한지며 右委員은 既히 派遺된 吾族의 委員과 一致行動을 取할 것이다。

四、前項의 要求가 拒絶 時는 吾族은 日本에 對하여 永遠히 戰을 宣할지 慘禍는 吾族이 其責을 任치 않는다。

京都市右京区下津林佃 5-72 (☎075-3915933)
田 永 福

徐	白	金	李	金	崔	右代表者
椿	寬	喆	光	度	八	
	洙	壽	洙	演	鏞	
	金	崔	宋	李	尹	
	尚	謹	繼	琮	昌	
	德	愚	白	根	錫	

牧師金信煥

電話(〇八二二) 三二一四七三九

3・1 独立運動と在日同胞

大きく分けて、教会内での民族運動と信仰との問題、及び、民族主体性の確立の問題に關して話し合われた。教会内での、民族と信仰の問題に關しては、教会（在日大韓基督教會）は、獨立後、民族の痛みを忘れた閉鎖的な教會と化した。各個人の純粋な信仰を重んずるあまり、我が民族、同胞に對する責任を忘れ、特に二世、三世の青少年信徒層においても日本化していきつつ、民族虛無主義におちいつていく流れがあつ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三・一獨

痛み忘れた閉鎖的教会
民族主体性の確立時急

ことで、そういう状況を創っていくことが大切である、と強調された。

後者の、民族主体性の確立の問題に関しては、教会内外を問わず、クリスチャンであらうとなかろうと、民族主体性を確立していくことが必要であり、そこに

運動そのものに対しての評価の仕方や、祖国に対する二者択一の問題なども話し合われた。

まとめとして、第一に我々の課題は、南北統一問題である。五十三年前の我々の先輩が、祖国解放と独立のために闘ったように、

使命はどこにあるのであろうか。我々の現実をどのようにに聞っていくのか、それを考えていく中から、建設的な何かが生れてく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公開講座に対する期待が大きく、この講座を基盤と

第二に「三・一独立運動」の導火線となった二・八宣言文を書いたところの我々の先輩たち（留學生）が、いろいろな会合の場所として、東京韓國YMCAを利用した。それと同じように、KCCは、大いに祖国、在日同胞の問題のために活用

その中で主体を確立していくことが肝要であろう。そのような主体的生き方を問うことによって、「三・一独立運動」の民族独立の精神は、今なお時代を越えて、今日の我々に道を示すであろう。今後の参加者の協力を約して解散した。（KCC提供）

만물이 소생하는 초봄을 맞이하여 하
 님 은혜중 귀교회와 각교우의 평강하심
 을 삼가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一九七
 一年五月 부터 활동을 개시한 KCC는
 우리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내외 각
 교회들의 원조로 회관도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원의 부채도 수개월내로
 는 다 반환할수 있게됨을 심히 기뻐하
 든 차 천만의 외에도 지난 七日 새벽 어
 면자의 방화로 因하여 火災를 입게되어
 이웃은 물론 關係기관과 全國敎友들을 크
 게 놀라게 하였으나 不幸中 多幸으로 一
 層만이 被害를 받았으며 若干의 火災保
 險이 걸리어 있었음으로 곧 復舊할 줄 압
 니다。過度한 念慮를 마시기 바라오며 K
 CC발전을 爲하여 더욱 기도하여 주심
 과 KCC를 위한 작정헌금 미납된 교
 우들은 곧 보내주시기를 앙탁하면서 우
 선 인사를 드립니다。

館長 俞錫濬

기독교교육 개선의 필요성

태 비 수

문으로 들어 오지만 그
들은 몇년후에 곧 많은
수가 뒷문으로 빠져 나
감은 본다. 뿐만 아니라
앞문으로 들어오는 아이
들의수도 매년 점점 적
어진다. 그리고 한시간후
에 같은 앞문에서 서서 어
른들이 예배당에 오는것
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
다. 「이 부모들중에 매
일 자기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가
르치고 있는자가 얼마나
가?」 또 그들중에 학생



몇주일전에 나는 어느 예
배당 앞문에 서서 교회
학교에 오는 어린이들을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
했다. 「이들이 청년에
되었을 때 진실로 교회
의 충실한 일꾼이 되는
가?」 또한 그들은 일상
생활을 지도할 만큼 성
경을 읽으며 자신이 공
부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는가? 또 그들이 생
수 그리스도가운데서 생
생한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
면 어린이들은 교회의 앞

해방된 29세의 한 여인이 골목길
에 앉았다. 구부선본영 앞
중앙동으로 통하는 후미진
골목. 맥장사를 시작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내 땅 내 나라 금수강
산이, 해방전 이국 만
주땅에서는 몹시도 그리
웠다. 그래서 광복 즉시
귀국했다.

李太奎 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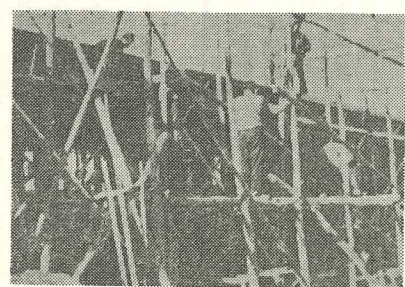
逆境 딛고 꿈을 부른 女人

구두의 앞부분이 회장을 맞
았다. 40년 동안의 정약생
활로 모은 돈이 자그마
치 3억원. 「당교바지」
영감은 이전 돈줄때가 됐
다며 이웃을 위해 사재
를 털기 시작했다. 김
世容씨(61·경기安城邑崇
仁洞 66·太陽機械자장) 하
면 모르는 사람이 있어
도 「당교바지」는 어린이
들에게도 통한다. 安城
교감부가 된 이날까지 「당



作業服半平生の 安世容氏

40년 공복...이전 슬픔



교바지」차림, 「백터이」
맨것을 본사람은 없다.
14일은 김씨의 회갑날.
金씨는 이날 사재 1천2
백여만원과 함께 西仁洞에
짓고있는 상공회관(4층
)을 安城 상공회의소에 기
증한다. 뿐만 아니라 내년
봄 회관이 준공되면 기업

원지 다른 사람보다
이 잘 팔렸다. 석탄안에
5만원의 벌었다. 하루에
다른 사람의 세뭇돈은 팔
았다. 그 돈을 처음 가
난한 고향에 싣았으니 팔
리는 눈길과 미소를
다. 그 뒤 보수동종교시장
에서 포목가게를 열었다.
돈10원을 절약키 위해 배
를 줄라맨 이태규(50)
여사는 새벽4시이면 일어
어나 영선교회를 걸어 부
산전시장에 물건을 내놓으
러갔다. 「박리다매」의
원칙은 이여사의 상술의
모두였다. 모범상인으로
상도받았다. 새벽4시 일

어 나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12년. 그때 번돈으로 작
은 부동산을 여러군데 샀
다. 12년전부터 문화극장
앞에 목욕탕 출입문을 개
업했다. 무던히도 참고 견
디었다. 그러던 그녀가 이
번에 대연중학교를 인수하
자장차리에 앉은 것이다.
그러니까 35년전 12월
17일 새벽3시께 그 기억
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16살의 태규소녀는 고향
인慶北義城郡 金城현 山
雲里에서가난한 홀어머니
몰래 개나리꽃집을이교추
운겨울길 25리를 걸어서
집을 나선것이다. 공부를
할수 있는 大邱로 도망
쳐간 것이다. 소녀는 두
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자 어
머니는 교인이 아닌 남
자와 약혼시키기 위해한
창 준비를 서둘렀기 때문

학교졸업생중 2백명을 뽑
아 중·고·대학까지의 학
업을 끝낼 수 있도록 뒤
를 대기로 작정했다. 40년
전인 21살때 일본 「히로
시마」(広島) 공업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돌아온
金씨는 자전거리를 차렸
다. 그 유명한 「당교바지」
는 이때부터 입기시작했
다. 부지런히 벌었다. 끼
출근당교바지」를 입고

정영상담소, 세무상담소,
특히안내소를 뒤 1천3
백여명의 安城郡내 상공인
들의 도움이되게하고 우량
상품전시관과불량상품전시
관을 만들어 상공인의 양
심을 불려일으키겠다는 계
획을 갖고있다. 김씨는 또
머리는 좋은나점안행원이
어려워 진한못하는 국민

니를 줄여 가면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레코드」
상회를 차릴 수 있었고
밀지않아 도정기와 원동
기의총판을 맡게됐다. 공
업학교를 나온 김씨는 무
엇인가 생산공장을 내는
게 꿈이었다. 2년후 그
는 자그마한 철공소를 차
렸다. 주로 농기구를 만

에 이를 마다고 뛰쳐나
온 것이다.
당시 미국인으로 義城
군의 순회목사던 안무
하씨를 무작정 찾아갔다.
소녀의 굳은 결심에 감
동한 안목사는 자기집안
의 잔일을 거들어 주게
하고 그 월급으로 공부
를 시켜주었다. 소녀는
중·고 숙성학교인命道학
원과(3년), 성경학교2년
을 수료했다.
공부할 5년동안 풀무
를 매가며 보리밭에 된
장만으로 생활했다. 영양
실조에도 걸렸다. 그때마
다 안목사내외는 친팔처
럼 소녀를 돌보았다. 드
디어 21세에 결혼도한그
녀는 교원이던 남편과함
께 교자가 되어 滿洲대전
자우급국민학교에서6년간
교직생활을 하기도했다.
「처음엔 시교유위도 장

자하는 여자가 학교를 인
수 했으니까 장사속으로
학교를 하는줄 알았나불니
다!」 이젠 시교유위의 태
도도 크게 달라졌다. 이
여사의 애기. 70년초 정
영년에 부딪친 신실 대
연여중을 인수할때 돈이
있을때마다 그때때부었던
50만원짜리 적금통장40장
과 정기예금 3천만원등
8천만원의잔돈 내놓아 주
위사람들을 감쪽놀라게했
다. 남편도 없는 연약
한 여인이 더구나 장사바
에 모르리라던이여사가 학
교를인수했다는 사실이 주
위를 놀라게 한것이다.
그러나 이 여사는 하루
도목욕탕 군무를 쉬는적
이없다.
매일 아침5시에 일어나
밤10시에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자리에 들게 된
다. 하루 교박17시간의 일

들어 왔다. 김씨의 재산
은 부적부적 늘어 갔다
。 14년후엔 太陽機械라는
회사를 설립, 원동기와도
정기를 생산했다. 재산
이 억대를 넘어 섰다.
安城 최고갑부로 솟아난 것
이다. 그러나 그의 집은 20
년전 자전거포때의 그 초
가집이었다. 초가집에서
출근당교바지」를 입고

하는 그를 보고 읍민들
은 손가락질 했다. 「구
두의 당교바지 지나간다
!」 이를 아랑곳않고 김
씨는 계속 재산을 불려
갔다. 김씨는 노력없이
돈을 갖는 것은 모래바
닥에 물붓기라면서 두아
들에게 재산을 거저 물
려주지 않았다. 서울대학
공과를 나온 큰 아들興
洙씨(38)에게는 安城邑
鳳山洞에 安城주물공장을
세우게 해서 말렸고 들
래榮洙씨(36)에게는 安
城邑 樂園洞 太陽철공소
를 내주어 자립 토록했
다. 興洙씨도 작업복 차
림으로 공장에서 잠을 자
며 착실히 키워가 마침
내 2만2천달러 상당
의 주물을 미국 「키스톤
!」 「벨」 회사로 수출했
고 동생榮洙씨는 67만달
러어치의 「문짜」를 곧
미국에 수출할 예정으로
있다. 김씨는 기계조선
화에 상당한 업적을 남

겼다. 그중 그가 발명한
중도식제분기는 재래식보
다 4배, 일본것보다도 갑
절의 성능을 지니고 있
다. 그밖에도 정미기의 공
랭식배출장치등 15종의실
용신안특허를 얻었고 南
山の 「케이볼카」도 김
씨가 제작해낸것이다. 김
씨는 60평생 술과담배에
손을 안댔다. 젊어서 뒤
은 유도실력(3단) 탓인
지 평상 몸살한번 앓지
않았다는것. 김씨는 구
두의라고 손가락질을 받
으면서도 安城신생보육원
、安育중학、明倫중학등을
증축할 때는 스스로 사
재를 기울여 자재를 대
주었다. 그에게 손가락
질하는 사람은 이전 없
어졌다. 安城邑민들은 14
일 김씨의 회갑을 모두
축하하고 있다.
(사진은 김세용씨와 건
충중인 안성상공회의소)

(사진은 이태규여사)